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출발) 10명 이상 1000원 (계시)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경선제 실시
- 예약: www.hpdyndynash.co.kr 0801-320-7700

러시아 ▶

유로 2008 준결승 내일 오전 3시45분



히딩크 감독

‘히딩크 마법’이 스페인과 재대결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 축구 대표팀이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4강에서 ‘무적 함대’ 스페인과 다시 맞붙는다.



EURO 2008 Austria Switzerland

조국 네덜란드를 제물 삼아 준결승 진출에 성공한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러시아는 27일(한국시간)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 슈타디온에서 D조 조별리그 때 한 차례 맞붙었던 스페인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 스페인



아라고네스 감독



뜨거워 지는 득점왕 경쟁

스페인 비야

독일 포돌스키

히딩크 ‘설욕의 마법’ 성공할까?

D조 예선서 1-4로 꺾였던 러시아

“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 필승 결의

러시아는 비랑 끝 단판 승부에서 히딩크 매직이 통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고 조 1위 중 유일하게 4강에 오른 스페인은 막강 화력을 앞세워 러시아의 돌풍을 잠재울 태세다.

이 경기에서 축구 팬들의 관심은 단연 히딩크 감독의 ‘기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다.

러시아는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수비 조직력에 문제점을 드러내며 스페인에 1-4로 대패하자 ‘히딩크 매직은 더 이상 없다’라는 비야냥거림까지 나왔다.

그러나 2, 3 차전에서 그리스와 스웨덴을 잇따라 물리치고 극적으로 8강에 오른 뒤 강력한 우승 후보 네덜란드까지 3-1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오자 그의 지도력은 재조명을 받았다.

무엇보다 네덜란드를 꺾으면서 러시아 선수단의 사기와 의욕은 하늘을 찌른다.

히딩크 감독은 준결승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스페인과 1차전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유로 2008 4강 진출팀 전력 비교

● 경기일시: 27일 오전 3시 45분
 ● 경기장소: 빈(네오스타디온)

러시아	국가	스페인
거스 히딩크	감독	루이스 아라고네스
4-4-2	포메이션	4-4-2
24위	FIFA 랭킹	4위
파블류첸코(3골) 아르시빈(2골) 지리아노프(1골) 토르빈스키(1골)	득점자	비야(4골) 토레스(1골) 리켈(1골) 귀사(1골) 파브레가스(1골)
vs 스페인전(1-4 패) vs 그리스전(1-0 승) vs 스웨덴전(2-0 승) vs 네덜란드전(3-1 승)	유로 2008 전적 조별리그	vs 러시아전(4-1 승) vs 스웨덴전(2-1 승) vs 그리스전(2-1 승) vs 이탈리아전(0(4PK)2-0 승)
	8강전	

나타냈다.

여기에 공격의 핵 안드레이 아르샤빈이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고 장신 스트라이커 로만 파블류첸코 역시 갈수록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파블류첸코는 스페인 공격수 다비드 비야(4골)에 이어 3골로 득점 공동 2위.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위 스페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러시아(24위)보다 한 수 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스페인에는 조별리그 1차전 러시아와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한 다비드 비야와 간판 골잡이 페르난도 토레스, 세스크 파브레가스, 다비드 실바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즐비하다.

이탈리아와 8강 승부차기에서 신들린 선방으로 스페인의 4강을 견인했던 수문장 이케르 카시야스는 이번에도 골문을 굳게 지킨다.

1950년 월드컵 4강 진출과 1964년 이 대회 우승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내세울 만한 성적표를 내지 못했던 스페인은 스타급 선수들을 앞세워 44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상대전적 5승3무2패로 앞선 스페인은 1971년 대회 예선 1-2 패배 후 러시아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루이스 아라고네스 스페인 감독도 조별리그 1차전에서 러시아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전술로 완승을 거뒀던 터라 재대결에서

연합뉴스

열기를 더하고 있는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에서 ‘득점기계’ 타이틀을 노리는 후보들이 4강에서 외나무대결을 벌인다.

이번 대회 네 골로 득점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스페인 대표팀 공격수 다비드 비야(27·발렌시아)는 27일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 슈타디온에서 세 골로 부문 공동 2위인 러시아 공격수 로만 파블류첸코(27·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또 득점 부문 공동 2위(3골)에 올라 있는 독일 대표팀의 희망 투카스 포돌스키(29·바이에른 뮌헨)와 ‘투르크

전사’ 세미흐 셴투르크(25·페네르바체), 아르다 투란(21·갈라타사라이)도 하루

앞선 26일 결승 길목에서 격돌한다.

세 골 이상을 넣은 선수 세 명이 4강 팀에서 나온 반면 두 골을 사냥한 튀르키예의 니스탈로이(네덜란드)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스웨덴), 한 골에 그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등 내로라하는 골잡이들은 소속팀 탈락으로 일찌감치 짐을 싸들었다.

터키를 4강에 올려놓은 아르다와 세미흐는 나란히 두 골을 뽑아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된 니하트 카메지(29·바이 레알)와 득점 공동 5위다.

지금까지 역대 대회 득점왕 최다골은 프랑스의 축구 영웅 미셸 플라티니가 유로1984에서 조국을 우승으로 이끌고 기록했던 9골.

이후 유로2004까지 다섯 차례 대회 중 네 차례나 똑같이 5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아 이번 대회 득점왕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대회 유일한 헤트트릭 작성자인 비야가 득점왕 경쟁에서 가장 유리하다. 4강 맞대결 상대도 자신이 세 골을 몰아 넣었던 러시아다.

비야는 이번 유로 2008 예선 11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는 골 감각을 자랑했고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슈팅능력이 강점이다.

특히 비야는 이번 시즌 30골을 넣었던 페르난도 토레스와 공격

을 분담하는 데다 천재 미드필더 세스크 파브레가스 등의 든든한 실전 지원을 받는다.

이에 맞서는 파블류첸코는 ‘마법사’ 히딩크 감독이 믿는 러시아의 간판 스트라이커다.

파블류첸코는 이번 대회 예선에서 본진 진출 경쟁국이었던 잉글랜드와 경기에서 두 골을 폭발시켰고 비야와 맞붙었던 D조 예선에서도 한 골을 사냥했다. 키 188cm로 공중전에 강하고 장신임에도 발 재간을 이용한 빠른 돌파가 돋보인다.

포돌스키는 조별리그 2차전부터 8강까지 두 경기 연속 짜릿한 골 맛을 보지 못한 반면 아르다와 세미흐는 크로아티아전과 체코전에서 각각 역전승에 기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나달·샤라포바 2회전 진출

윌블던테니스 남녀 단식

남녀프로테니스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시즌 세 번째 그랜드슬램 대회인 윌블던대회 1차 관문을 가볍게 넘어섰다.

나달은 25일(한국시간) 영국 윌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단식 1회전에서 안드레스 백(122위·독일)을 3-0(6-4 6-4 7-6(0))으로 돌려 세웠다.

1966년 마놀로 산타나 이후 42년 만에 윌블던 정상에 도전하는 스페인의 나달이 우승할 경우 1980년 비온 보리(스웨덴) 이후 처음으로 한 해에 프랑스오픈과 윌블던을 연달아 제패하게 된다.

나달은 2회전에서 어니스트 겔비스(48위·라트비아)와 맞붙는다.

2004년 이 대회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던 샤라포바도 1회전에서 스테파니 포레츠(105위·프랑스)를 2-0(6-1 6-4)으로 완파했다.

턱시도 스타일의 재킷과 반바지를 입고 등장해 또 한 번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샤라포바는 “올 시즌 첫 잔디코트 경기였는데 좋은 내용을 보인 것 같

다”고 만족해 했다.

샤라포바의 2회전 상대는 알라 쿠드리아프체바(154위·러시아)로 정해졌다.

세계 4위 니콜라이 피리첸코(러시아)는 1회전 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다비덴코는 벤야민 베크(116위·독일)에 0-3(4-6 4-6 4-6)으로 일격을 맞아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됐다.

세계랭킹 661위에 불과한 크리스 이튼(영국)은 114위로 자신보다 550위나 더 높은 보리스 파산스키(세르비아)를 3-0(6-3 7-6(6) 6-4)으로 꺾고 2회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윌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올라 사브추크가 세르비아의 옐레나 안코비치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핸드볼팀

편파관정 설욕 기회

세계선수권 쿠웨이트와 한 조



우즈 무릎 수술 결과 좋아

한국 남자 핸드볼대표팀이 내년 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편파관정을 앞둔 아시아핸드볼연맹(AHF) 회장국 쿠웨이트에 다시 설욕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25일 “우리나라가 2009년 1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세계남자선수권대회 조 추첨 결과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다”고 전했다.

쿠웨이트 말고도 한국은 홈팀 크로아티아, 스웨덴, 스페인, 미주대륙 예선 3위 팀과 같은 조에 속했다. 2006년 말 도하아시아게임에서 중동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관정에 당하며 7연패의 꿈을 접어야 했던 한국은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예선에서도 AHF가 마음대로 배정한 중동 심판 때문에 쿠웨이트에 패하며 눈물을 삼켰다.

다행히 국제핸드볼연맹(IHF)이 AHF가 주도한 편파관정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올림픽 예선 결과를 무효로 결정할 덕분에 한국은 올 초 일본과 단판으로 열린 예선 재경기에서 승리, 올림픽 티켓을 차지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25일(한국시간) 왼쪽 무릎 인대 수술을 받았다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10주 만에 두 번째로 무릎에 칼을 댄 우즈는 이번에는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4월에 무릎수술을 받았던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의 같은 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졌으며 수술을 맡은 토마스 로젠버그는 “수술과정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결과에 만족한다. 적절한 재활 및 훈련이 동반된다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우즈는 “재활을 시작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내년 PGA 투어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기 위해 곧 재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활이나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즈는 “적당한 때 재활 및 복귀 계획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